

## 하반기 동호회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 ◆등산동호회(회장 박한성)

5월부터 밴드와 메시지를 통해 16~7명의 회원들이 꾸준히 산행을 해왔으며, 현재도 월 2회(둘째, 넷째 수요일) 산행을 계속하고 있다. 10월 넷째 수요일(19일)에는 사우회 주관 등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등산동호회에 참여하실 회원은 **선남준 총무(010-5308-0417)**에게 연락 주시기 바란다.

### ◆바둑동호회(회장 이창호)

6월 9일 이창호(기술, 사진) 회원을 차기 회장으로, 정태식(기술) 회원을 총무로 선출 했다. 이창호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수고해주신 전임 집행부에 감사하며, 코로나 여파로 위축됐던 바둑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바둑동호회는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오후 1시

에 정례모임을 갖는데 기존 회원 외에 추가로 신입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6월 15일에 가진 첫 대국모임에는 18명의 기사들이 참석해 오랜만의 수담手談을 즐겼다. 참여를 원하는 회원은 **정태식 총무(010-5214-1805)**에게 연락하시면 된다.

### ◆캘리그래피 동호회(회장 정인영)

7월 4일 오후 3시부터 사우회 회의실에서 캘리그래피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가능하면 가을 쯤 전시회를 갖고 싶다는 정 회장의 바람이지만 성사 여부는 회원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린 듯.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사우회 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정인영 회장(010-8782-9841)**과 **유재석 총무(010-8729-3732)**가 캘리그래피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 ◆한문동호회(회장 양진수)

7월 19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경서經書반과 노자장자老子莊子반으로 나누어 개강한다.

경서반(훈장 권혁화)은 화요일에 『소학』을 교재로, 노자장자반(훈장 이진세)은 목요일에 『노자 도덕경』을 교재로 공부한다.

『소학』은 소자의 학문이란 뜻으로 옛날 초등교육기관인 소학교의 교과서로 소학의 기본강령과 실례, 명현名賢의 격언과 명가名家의 가훈을 모았다.

『노자 도덕경』은 사람이 걸어야 할 도道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는 철학서로서 성서聖書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책이다. 참여하실 회원은 **권혁화 총무(010-3739-0889)**에게 연락하시면 된다.

### ◆골프동호회(회장 김용빈)

코로나 악재로 인해 단체 부킹의 어려움, 그리고 인상 등 제반 여건이 여의치 않아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 연락처는 **정경석 부회장(010-6233-1313)**이다.

### ◆남시동호회(회장 김종수)

대부분의 회원들이 고령자인 관계로 출조出召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예년 이맘 때면 밤낚시를 즐겼지만 올해는 아직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낚시를 즐기는 새로운 회원들의 많은 가입을 기다리고 있다. 연락처는 **김종수(010-6394-9710)회장**.

이 밖에 싸이클동호회, 당구동호회 등을 결성하자는 의견이 사무처에 전달됐으며 사무처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 사무처 소식

사무처는 사우회보를 모바일 기기나 PC에서도 볼 수 있도록 71호부터 사우회보 URL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보

가 발행되면 해당 회보 URL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존 회보를 보시려면 <https://url.kr/jec2fp>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우회 계좌번호**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 발전 기금을 내주신 분들(5월 15일 이후)

- 정형진(관리) 100만원(2회)
- 석남수(기술) 30만원(5회)
- 조형재(편제) 20만원
- 익명(편제) 30만원
- 박미숙(관리) 20만원
- 정호준(기술) 10만원(2회)



정형진



석남수



박미숙



조형재



정호준

“귀사를 위한 최고의 브랜드 스토리를 MBC아트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 MBCART

##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을 선도합니다.

국내 최고 종합미술전문회사

MBC아트는 국내 최고, 국내 유일의 종합미술전문회사로 1992년 설립 이래 미술 전문 인력이 드라마, 예능 등 방송미술 분야를 비롯해 전시·테마파크·인테리어·공공디자인·영화·무대행사·조형·캘리그래피·특수분장 등 모든 미술분야에서 탁월한 솜씨로 국내 미술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6 MBC드림센터 6층 T. 031-936-0000 F. 031-936-0300



## 사우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이동일(관리)**  
1979년 총무국 입사.  
총무부, 용인드라미  
아개발단 등에서 근무. 2013년 퇴직.



**조형재(편제)**  
1982년 라디오국 PD  
입사. 라디오제작부,  
FM방송부 등에서 근무. 2013년 퇴직.



**김완식(기술)**  
1987년 기술국 입사.  
제작기술부, 감사실,  
보도기술부 등에서 근무. 2021년 퇴직.



**지윤태(보도)**  
1989년 보도국 입사.  
문화과학부,  
선거방송기획단,  
뉴스영상국NPS팀  
등에서 근무.

## 새로움을 탐하다

-버스커 조정선(편제)

예술인(주로 음악인)들이 거리에서 공연하는 것을 '버스킹', 공연하는 사람을 '버스커'라 부릅니다. '버스커'는 대개 젊은 이들이죠. 드물게 나이 지긋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드문 사람들 중 한 분이 바로 조정선(편제) 회원입니다. MBC라디오의 유명한 '나서기 PD'로 일부 보여주기는 했지만, 타고난 끼를 퇴직 후 아낌없이, 과감하게 발휘하고 있는 조 회원은 환갑이 넘은 나이를 개의치 않고 기타와 앰프를 둘러메고 거리공연에 나섰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용기'와 '신념'입니다. 본인은 물론 그의 연주와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다면 그는 만족할 것입니다. 아래 글은 그가 버스킹을 하게 된 사연입니다. 어느 날 거리를 가다가 혹시 노래하는 그를 만나시거든 걸음을 멈추고 큰 박수를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편집장)

바둑 얘기를 하자면, 아마추어 중에서 제일 잘 둔다는 사람에게 5단이란 칭호가 붙여진다. 그런데 아마 5단은 프로 초단에 비해 현격한 실력 차이가 난다고 들었다. 접바둑을 두지 않으면 만방으로 진다는 거다. 한마디로 둘 사이는 자릿수가 틀린 셈이다.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 가서... 당시 매주 편성된 KBS노래자랑이 꽤 인기가 있었는데, 월말 결산을 거쳐 연말 최종전에서 우승을 하면 트로피와 함께 가수협회장이 가수 회원증을 부상으로 주었던 기억이

난다. 가수 아무나 못 한다는 의미였겠지.

달포 전쯤 내가 PD를 맡았던 Beatles Radio의 청취자들이 모임을 가졌다. 서너 시간 내내 Beatles 노래와 다른 팝송, 가요를 섞어서 부르다 헤어지려는데, 청주에서 늦깎이로 교대교대를 다니는 참석자가 버스킹 장비를 가져왔다며 서촌이나 인사동 쪽에서 몇 곡 부르고 가겠다고. 유난히 하얀 얼굴에 긴 원피스(30대 여성이다) 차림을 하고 있고 키도 꽤 큰 편이라 보헤미안 '수잔 베가(Suzanne N Vega)' 느낌이 날 것도 같았다.

막걸리를 나눠마시며 간간이 기타 반주로 노래를 부르는데 보통 실력이 아니었다. 백수가 뭐하리~ 나도 자연스럽게 따라 나섰고 통인시장 누상동 쪽 입구에 버스킹 장비를 펼쳐놓고 공연을 시작한 게, 6시 반쯤 됐으려나? 어찌어찌 하다 보니, 권커니 잣커니 술잔을 나누듯이 지그재그로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됐다. 게다가 술을 어지간히 마셨으니 망설임이나 부끄러움 따위는 없었다. 고백컨대 3년 전쯤 동송동에서 열치기 버스킹을 한 적은 있었지만 이처럼 제대로 거리공연을 하게 된 건 처음이었다.

느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미로부터 독립한 야생동물이 처음 사냥에 성공할 때와 같은 짜릿함이라고나 할까. 37년간 수많은 음악공연을 연출하면서 관객이 가수들에게 반응을 보이고, 그걸 기획한 내가 흐뭇해하는 것이 간접조명 같은 기쁨이었다면 이걸 LED 직접조명을 켜고 할 수 있겠다.

관객 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보여주는 반응의 진정성이 그만큼 매력적이었



다는 거다. 그게 끝나고, 당장 아내를 채근했다(채근은 적합한 말이 아닐 수도). 버스킹 장비를 사겠으니 돈을 대줘라. 몇 해 전인가? 은퇴를 앞두고 생일을 맞은 내게 아내는 큰 선물을 종잇조각으로 주었다. 뭔가 싫어서 펴보니 '한도 000원의 마틴기타 구입권'이라고 손으로 직접 쓴 사설 상품권이었다(위낙 큰 금액이라 위화감을 조성할지 몰라 000원으로 처리).

하지만 심각한 결정 장애로 인해 기타를 구입하지 못한 채 무려 2년여를 허송세월로 보낸 일이 있다. 정작 기타는 몇 개월 전에 자릿수가 하나 부족한 00원짜리 미니 마틴으로 구입. 덕분에 아내가 000원은 굳었으니 그걸로 앰프, 스피커 일체형인 장비를 구입해 달라 압박한 거다. 물론 나의 훌륭한 내조자는 흔쾌히 동의했고 가슴 떨리는 버스킹 장비가 지난주 광화문 오피스에 도착했다.

그러나~ 막상 거리로 뛰쳐나가려니 여러 상념이 나를 가로막았다. 환갑이 지난 나이에 무슨 짓인가 싶기도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철성격을 가진 인물도 아닌데다, 연주나 노래 실력이 빼어난 것도 아니었으니, 어찌 주저함 없이 Go!를 외칠 수 있겠는가 말이다. 그래도 사 놓은 악기와 장비가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주말을 D데이로 정하고 일단 스스로 반



주하며 부를 수 있는 레퍼토리부터 리스트 업하고, 이내 연습에 돌입했다. 그런데~ 그동안 별 문제없이 소화할 수 있었던 곡들이, 막상 정오표正誤表를 들이대며 체크하듯 부르니 어찌나 틀리는 게 많은지, 이래가지고 남들 앞에서 공연이랍시고 할 수 있겠나? 의문이 자꾸 드는 거다.

마침내 D데이 오후 7시에 지난번 교대생이랑 함께 공연했던 통인시장 누상동 입구 쪽에 다시 터를 잡았다. 에라 모르겠다, '아니면말고 ism'으로 그동안 자주 불렀던 이문세의 '해바라기'부터 시작. 한 시간 반을 내리 불렀다. 그 중에는 가사 잊은 것, 코드 백사리 난 것, 민망스런 순간들이 많았지만 결국 무사히 끝났다. 처음으로 혼자 하는 버스킹이라 '돈을 기부해 주십사'하는 기타 케이스라든가 모자 등을 바닥에 깔아놓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공연 내내 귀를 기울여 주시던 포스트 중년의 여성 한 분이, 관람료라면서 봉투를 주셨다. 오피스에 와서 열어보니 신사임당 여사가 나를 반기네. 5만원이라는 말씀! ㅎㅎ 아마추어 5단은 프로 초단에 못 미친다. 우리 고을 명가수는 인기가 고만고만한 프로가수에 결코 미치지 못한다. 그런 저에게... 감사합니다!! 너무 자주는 아니라도 앞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조사항

**구순:** 이태림(업무) 33.8.26      김현철(편제) 33.9.2  
노시창(전주) 33.9.13      황의철(관리) 33.9.18

**팔순:** 김종세(보도) 43.8.3      석남수(기술) 43.8.6  
최영복(관리) 43.8.10      박광성(업무) 43.8.10  
정승호(대구) 43.8.25      박웅곤(관리) 43.9.14  
박기윤(대구) 43.9.24      정태웅(기술) 43.9.28

**고희:** 강찬임(편제) 53.9.8      전춘옥(관리) 53.9.11  
장정기(기술) 53.9.17      김경로(기술) 53.9.20

**회갑:** 황효성(관리) 62.8.14      전미경(편제) 62.9.9  
이종숙(관리) 62.9.22      정화용(관리) 62.9.27

**부음:** 봉필구(편제) 봉필호(보도) 부친상 6/11  
김호준(보도) 모친상 6/14      서영호(보도) 부친상 6/27

연회비

평생회비 : 이동일, 김완식, 조형재

2022년 : 김관중 박창순 방남순 정석진 정영수 이영호 이오기  
조병영 조태병 홍학표

2025년 : 박미숙

주소 / 전화번호 변경

**편제:** 김포천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석정2로140 서울시니어스고창타워  
노형식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55 (미사강변 더샵 센트럴포레)  
조정선 서울 은평구 수색로 200 (DMC센트럴자이)  
조형재 서울 마포구 송문길 98 (마포자이 더 센트리지)  
최성근 서울 금천구 가산로 99 (가산동, 두산위브아파트)

**보도:** 고 진 경기 파주시 한빛로 70 (야당동, 한빛마을 5단지 캐슬엔칸타빌)  
정우석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중앙로 90 (새롬동, 새롬마을10단지)

**기술:** 김완식 서울 양천구 신목로 16 (신정동, 쌍용아파트)  
이동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66길 32 (역삼동)

**관리:** 김삼량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177-6  
김순단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311(안양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이동일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 매화1길 2-7

회/원/동/정

▶최노석(보도)



‘ESG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한 KSS해운 설립자 박종규 고문의 회사 경영에 관한 애기를 담은 “모소 대나무처럼”을 발간했다. 최 회원은 현재 경향신문 사우회장이다.



▶문기회

퇴직 기자들 모임인 MBC文記會는 6월 30일 회의를 열고 박노홍 회원을 임시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연말까지 매월 한 차례씩 친목을 다지는 모임을 갖기로 했다.

## 북악산 남측 개방로 산행 후기



김진홍(관리)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침투 사건을 계기로 민간인의 출입을 금했던 북악산. 북악산 한양 도성은 군사보호지역으로 이곳을 출입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고, 그나마도 월요일은 출입이 통제되던 곳이었으나 2019년 4월 5일 상시 개방함으로써 신분증 확인 없이 패찰만 받고 입산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11월 1일 1단계 개방에 따라 북악산 성곽 북측면이 개방됐고, 4월 6일 남측면 개방으로 북악산 길은 54년 만에 전면 시민 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북악산 남측 탐방로를 연결하는 청운대 쉼터(5번 출입문), 숙정문(6번 출입문), 삼청안내소(7번 출입문)에 각각 출입문을 신설했고, 광화문역 2번 출구 앞에서 11번 버스를 타고 종점(삼청공원 삼거리)에서 하차한 후 삼청동 안내소에서 출발하는 코스 또는 안국역 2번 출구 앞에서 02번 버스를 타고 종점(성대 후문)에서 하차한 후 와룡공원에서 출발하는 코스 중 하나를 택하여 올라가면 된다.

나는 경복궁역 3번 출구로 나와 1020번 버스를 타고 부암동 고개(운동주 문학관)앞에서 하차하여, 창의문 안내소에서 패찰을 교부 받아 목에 걸고 가파른 계단이 힘이 들어 ‘말바위 쉼터’와 ‘백악 쉼터’에서 잠시 쉬었다가 해발 342m 백악산(북악산의 옛 이름) 정상에 올랐다. 북한 무장간첩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당시 우리 군인과 간첩단 사이에 벌어졌던 치열한 총격전 흔적이 남은 소나무를 보며 당시 교전 중 전사했던 최규석 총

경과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복을 잠시 빌었다. 청운대를 지나 조금 더 진행하니 남측 개방로 5번 출입문 앞에 도착했다.

5번 출입문 앞에서부터 남측 개방로의 시작점이다. 잘 정돈된 남측 개방로를 30분쯤 가면 북악산 내 문화유산인 ‘만세동방’ 약수터(약수터 물은 음료로는 부적합하다)가 나온다. 약수터 바로 위에 있는 바위에 “萬世東方 聖壽南極”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주변 계곡을 ‘만세동방 계곡’이라고 부른다. 조금 가파른 데크길을 20분쯤 내려 가면 삼청안내소에서 올라오는 길과 마주치는 삼청휴식장(옥호정) 삼거리에 도착한다.

삼청휴식장 옆에는 장병들이 휴식을 취하던 계곡 수영장이 있다. 가로 7m, 세로 2.5m에 가장 깊은 곳은 2.7m이다. 삼청휴식장 삼거리에서 잠시 쉬었다가 말바위 안내소로 길을 잡는다. 15분쯤 가면 법흥사 터(사진) 앞에 도착하는데, 법흥사 터 초석을 깔고 앉은 문 대통령 부부를 향해 불교계에서 “참담하다”고 말한 바로 그 초석이 여기에 있다, 지금은 들어갈 수 없고 법



흥사 터 표지판 앞에서만 볼 수 있다. 절터의 보존과 향후 발굴 조사를 고려해 우회로를 조성했다.

법흥사 터에서 25분쯤 더 가면 남측 개방로 6번 출입문 숙정문 앞에 도착하는데 남측 개방로는 여기서 끝난다. 말바위 안내소에서 들어올 때 받은 패찰을 반납한 뒤 삼청공원 방향과 와룡공원 방향 중 와룡공원 방향으로 길을 잡았다. 와룡공원에서 300m쯤 걸어가면 11번 마을버스 정류장(성대 후문, 와룡공원)이 있다.

오늘 총 산행 소요시간은 휴식시간 40분 포함하여 세 시간이 걸렸다. 남측 개방로는 3km 정도 되니 가장 편한 코스는 삼청안내소를 시작점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 인터뷰

## 아파트 관리를 내 집처럼 -신승철(관리, 이사)회원



## ▶어떻게 주택 관리업무를 시작하게 됐나요

2007년에 만 58세로 정년퇴직을 했는데, 주변 친구들이 주택관리사 또는 건물종합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아파트나 건물 관리 일을 해 보라고 권하더라구요. 어차피 30년 넘게 시설관리 분야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저도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서 먼저 건물종합관리사 자격증을 땀고, 이듬해 인천 계산동에 있는 300세대 오피스텔 관리회사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부녀회 입김이 쏠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이 더 나을 것 같아서요. 거기서 10년 동안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계양구청장 상이랑 인천시장상을 받을 정도로요. 일하는 동안 필요에 의해서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증도 따고, 승강기 관리 교육도 받고 등등...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자격증도 갖게 됐구요.

## ▶본사에서 했던 일이 그쪽에서도 도움이 됐겠네요.

그럼요. 본사 시설운용부에서 일하는 동안 건물과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었죠. 또 중앙감시실 근무를 통해서 기계설비, 전기시설, 승강기 관리 등 모든 분야를 다 경험했죠. 통신은 물론이고 심지어 기술행정도 익혔으니까 그런 경험들이 업무연계가 돼서 많은 도움이 됐죠.

## ▶지금도 위탁관리회사 소속이신가요

아닙니다. 오피스텔에서 10년 일하고 마치면서 위탁관리회사에서



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 신분으로 자치관리하는 아파트와 단독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개포동 현대, 문래동 한신, 화곡동 웰라이즈빌 등에서 일했고 지금은 인천 송내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취업센터에 제 신분을 등록해놓으면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저의 이력이나 자격을 검토해서 제게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제가 그런 곳을 찾아가서 저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구요. 자치관리하는 아파트는 대체로 크지 않은 규모라서 잘만 하면 가족처럼 지낼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지만요.

## ▶일하면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대체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나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민원'입니다. 열 번 잘하다가도 한번 잘 못하면 돌변하는 게 인심이라구요. 관리실에 오는 입주민치고 웃는 얼굴로 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불만 때문에 오는 거니까요. 심지어 문을 발길로 차면서 "소장놈 어딨어?"라며 욕설이나 쌍소리가 먼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곤혹스럽고 부담 됐었죠. 그렇더라도 그런 분들을 맞는 저는 늘 웃는 얼굴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모든 민원의 최종 책임자는 관리소장이니까요. 민원의 종류도 가지가지입니다. 일일이 기억할 수 없어서 저는 처음부터 민원은 무조건 그때그때 파일로 저장해놓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시비가 없으니까요. 대체로 이 민원 때문에 관리소장 직을 그만두는 일이 많습니다. 저의 MBC 선배 두 분도 관리소장 잘 하시다가 민원에 시달려서 결국 그만두시더라구요.

둘째는 '시설관리'입니다. 새 건물은 새 건물대로, 낡은 건물은 또 그것대로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업장들은 그런 경우 일단 큰 수리업체에 맡겨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리소에서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는 잘 안해요.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 뒷말이 있을까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것들을 수리하거나 정비하는데 고도의 기술력이나 큰돈 드는 일이 아니라면 제가 직접 하거나 직원들과 함께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돈 들여서 하는 거야 아무라도 할 수 있지만, 가급적 돈을 쓰지 않으면서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잖아요. 화곡동에서 일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3억원 가량 절약했더니 퇴직할 때 금목걸이를

선물하데요. 선물도 선물이지만 그런 저의 노력과 진심을 알아봐 준 주민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셋째는 '직원관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일 힘든 게 이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하는 사람을 관리한다는 건 정말 피곤한 일이라는 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참 말하기 뽀하지만, 10년 관리소장 하는 동안 직원이 13명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을 딱 두 명 봤어요. 대개는 매사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죠. "어차피 주민들이 내는 돈인데 업체에게 맡기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능력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오하려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더라구요.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인사관리만 잘해도 전체 업무의 절반은 해결된 거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면 건강에도 도움되죠?

그런가 봐요. 제 소신은 이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나이 먹으면 어딜 가나 소외되고 무시 당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힘 있는 동안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면서 주위에 도움을 베풀면 내가 늙었다고 무시 당하지도 않고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또 비록 늙었지만 얼마가 됐건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내 가족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그런지 정말 건강도 아직은 큰 문제가 없고 적은 수입이지만 비교적 쫄들리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는 도중에도 틈틈이 도서관이나 경로당 같은 공공시설에 가서 고장 난 시설 중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옵니다. 그거 발주하면 다 돈 드는 일인데 제가 잠깐만 수고하면 여러 사람들이 편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 특히 나이 드니까 잠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간단한 청소도 하고 정리,정돈도 하니까 건강에도 좋고 주민들 반응도 좋습니다. 물론 기력이 전보다 못한 걸 보면 '아, 내가 늙었구나'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만.

## ▶관리자 입장에서 본 '슬기로운 아파트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모든 아파트나 공동주택에는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많아요. 관리 규칙상 전유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입주민이 처리하는 게 원칙인데도 잘 모르니까 무조건 관리소 직원부터 호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로 어느 부분이 노후하거나 불량인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일단은 도와 드려야죠. 대신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합니다. '원래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이번에 한해서 도와 드립니다. 그러나 너무 노후해서 혹시 일이 잘못돼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전제를 한 다음에 도와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문제가 되는 건 역시 '충간소음'일 겁니다. 원리원칙에 맞게 지은 건물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건물들이 충간소음에 취약하다 보니 민원도 많고 분쟁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물이 취약하다고 해도 입주민들 서로 간에 다른 사람들의 불편과 고충을 이해하고 배려해서 조금만 신경 쓴다면 다 같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상계단에 box나 자전거 또는 큰 물건들을 쌓아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은 불편하기도 하지만 소방법에 저촉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 번 지적하고 주의를 줘도 잘 안 고쳐집니다. 특히 규모가 크지 않은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수납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겠지만, 이웃의 불편을 생각한다면 사소하지만 서로 조심하면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쓰레기 분리배출 문제, 주차문제 등등 관리소 입장에서 입주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야 많죠.

현대 도시생활이란 게 이제는 거의 공동주택 생활이 보편화된 만큼 공동도덕을 유념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시민의식이 한 단계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소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주거환경을 좌우하는 주체는 역시 입주민들이니까요. 앞으로도 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우회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답: 편집장>



## 북리뷰



이원표(관리)

이원표(관리) 회원의 첫 시집 『양평강』을 소개한다.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1급 전기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던 그는 1983년 시설국에 입사해서 각종 스튜디오, ‘양주 문화동산’, ‘일산 드림센터’, ‘용인 대장금파크’까지 구석구석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MBC에 많은 애정을 쏟았다.

시설국 업무가 본사에서 미디어텍으로 이전한 뒤 주로 양주 문화동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가 작년에 “시마”라는 잡지를 통해 양평강楊平江을 소재로 한 연작시 10편으로 등단했을 때 그를 추천한 공광규 시인은 “풍요로운 서사와 아름다운 서정의 저력을 보여준 보기 드문 시인”이라고 그의 작품을 평했다.

1965년 봄 종로는

연일 데모로 최루탄 가스 눈물범벅이었다

종로5가 약국 거리는 문을 닫고  
골목골목으로 눈물 뚫으며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여름방학이 되자

한전에 다니시던 아버지는  
양평출장소장으로 발령이 났고  
양평으로 이사를 갔다

이사 가는 날

이삿짐 사이에 동생들과 자리하고  
멀미에 백지장이 된 얼굴로  
비포장길을 덜컹대며 달렸다  
푸른 산 맑은 강  
이름 모를 새들의 울음소리  
휘발유 냄새 뽀얀 먼지  
도로를 따라 달리는 전봇대

집도 사람도 산도 강도

길가 간판도 아이들도 강아지도  
모두 낯선 이국땅이었다  
(양평으로 이사를 갔다)

비록 생업을 위해 오랫동안 전기 분야에서 일했지만 그의 시작詩作생활은 기실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그가 아버지의 직장(한국전력)을 따라 서울을 떠나 양평으로 이주했던 초등학교 시절에 이미 그의 시심詩心은 형성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기 좋고 물 맑은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소중한 체험이 그의 기억 속에 겹겹이 쌓여 훗날 시 작품으로 탄생한 것이리라. 도시에서 살던 소년이 시골에서 접하는 모든 일들은 한

편 낯설면서도 어린 마음에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

신부전증으로 누워계신 할아버지께서  
자주 옥천냉면이 먹고 싶다고 하셨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노랑 오토바이에 주황색 헬멧을 쓰고  
어머니는 뒷자리에서 아버지의 허리춤을 꼭  
잡으시고  
옥천까지 비포장도로 십리 길을 달려가  
주전자 두 개에 냉면과 냉면국물을 따로 담아  
오셨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크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시며  
우리 오 남매를 위한 냉면은 사 오지 않으셨다

할아버지가 잡수시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막내는

할아버지가 건네주시는 한 입 냉면을 훌까당  
받아먹고  
까르르 웃으며 좋아했지만

나는 벌써 김치에 밥 한 공기 푹딱 먹고는

강으로 달려가 강물 속에서 텀벙이고 있었다

지금도 옥천을 지날 때면

옥천냉면 한 그릇 먹고 집으로 돌아온다  
(옥천냉면)

시집에는 그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던 6년 동안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양평 남한강 주변의 풍성한 얘기들이 골고루 담겨있다. 팔당댐이 생기기 이전과 이후의 양평강 체험, 중3 여름방학 때 양평을 떠난 뒤 성인이 돼 다시 찾은 양평의 모습까지 다양한 묘사들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 마치 다큐멘터리 작품을 보는 느낌이다.

지도 상에서 또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이미 사라진 1960~70년대 양평강 풍경과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서사로 복원하고, 비록 퇴색했지만 청소년기에 경험했던 낭만의 추억을 시의 형식으로 되살린 그의 시집은 개인의 서사이기도 하지만 한 도시의 생활사와 풍속사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시집의 표지와 곳곳에 담겨있는 삽화도 그가 직접 그렸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들은 동화책에서 볼 수 있는 색채감과 소재들이어서 본문과 잘 어울린다. 그는 다양한 능력을 가졌다. 글, 그림 솜씨 외에도 리크레이션 지도자, 웃음운동 지도자 자격증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땀었고, ‘양평문인협회’ 회원으로 시낭송협회

를 이끌고 있는가 하면 통기타 동호회에도 빠지지 않는다.

내년 쯤 직장에서 해방되면 그는 지금보다 더 바쁘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더라도 좋은 시 작품을 계속 써주길 기대하며 회원 여러분들이 필히 일독해보시길 권한다. (편집장)

양평을 떠나와 살면서도

오십년 전 양평강가를 뛰어 다니던  
열네 살의 뺑뺑머리 나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태어나지는 않았어도

6년을 살았다는 것만으로  
양평은 나의 고향이 됐다

서울에서 태어나

자주 이사를 다니면서  
고향이 어딘지 애매하던 나에게  
아름다운 고향이 생긴 것이다

더구나 양평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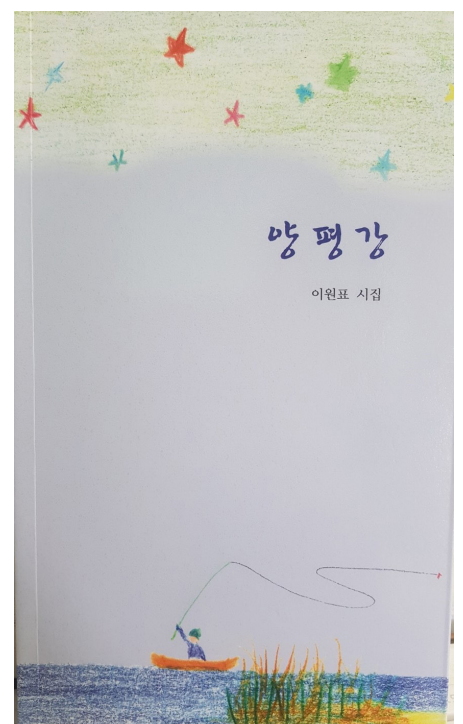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정 전원도시가 되어  
누구나 가보고 싶은 곳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행운인가

한가한 휴일이면

나는 때때로 양평에 간다

새로 문을 연 커피점에 들어가

에스프레소 커피향보다 진한 추억을  
한 잔 마시고 돌아온다  
(나는 때때로 양평에 간다)



양평강 시집

## 김승월칼럼

## 선물



김승월  
(편제 · 이사)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주는 게 선물이지만, 받는 사람이 기뻐하면 주는 사람의 기쁨 또한 받는 사람의 기쁨만큼이나 커진다. 주고 싶어서 주는 선물이지만 받고도 시큰둥해 하면 생각이 복잡해진다. 내가 좋아서 준 것이지만 서운해지기도 한다.

선물은 정을 나누는 것이다. 특히 작은 선물은 더욱 그러하다. ‘시그니스 아시아회의’ (아시아 가톨릭 커뮤니케이션 회의) 때마다 일본 대표를 만나는데 그들은 꼭 선물을 가져온다. 과자, 떡처럼 함께 먹고 끝내는 부담 없는 선물이다.

한번은 일본 여자 아나운서로부터 손톱만한 초콜렛 한 개를 선물로 받았다. 선물이라기보다 그저 건넨 음식이라고 할까. 받아서 부담 전혀 안 주는 귀여운 선물이었지만 세심하게 준비한 마음이 두고 두고 고마웠다.

‘인정 많은 사람이 선물을 많이 한다’고 한다. 선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인정 있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다. 선물을 받으면 정을 느끼게 된다. 선물은 사랑과도 비슷한 면이 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이 있듯이 선물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자주 선물하는 것 같다. 나는 거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꽤 오랫동안 선물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다. 그만큼 가난했다.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가 가출하시고 집은 빚더미에 앉았다. 어머니는 샅바느질로 빚을 갚으며 세 남매의 끼니를 하루하루 겨우 메워나갔다. 너나없이 가난한 시절이라 가난이 크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다. 객지에서 아버지가 딱 한 번 보내준 옷 한 벌이 초등학교 내내 받은 유일한 선물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자라서 그럴까. 내게는 여행 갔다 올 때 뭔가를 꼭 사 오는 버릇이 있다. 외국 공항에서 푼돈이 남으면 과자 한 봉지라도 사들고 왔다. 어머니가 내게 해주었듯이

내 아내와 딸을 위해서 뭔가를 주고 싶었다. 받고 자란다고 다 그대로 따라 하는 건 아닌 듯하다. 무남독녀 딸내미는 선물에 무심한 편이다. 장성한 후에도 해외여행 후 빈손으로 돌아오곤 한다.

“왜 선물 안 사왔냐”라고 장난 겸 농담으로 다그치면 “내가 살아 돌아온 게 선물이지 않냐”라고 우긴다. 하긴 살아 돌아온 거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만 조금은 서운하다.

딸내미에게서 감동적인 선물을 받은 적이 있긴 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다. “아버지, 메리크리스마스”라고 뽀뽀뽀 쓴 카드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고도 한글을 깨치지 못해 애태우던 때라 글씨를 쓴 것만도 기특해서 두고두고 간직하고 보았다.

이제는 서른 후반의 어엿한 사업가가 됐지만 아직도 그 카드를 볼 때마다 귀엽고 귀엽던 아기 얼굴이 떠오른다. 손바닥만 한 그 카드의 감동이 아직도 깊고 선명하다. 선물의 감동 크기는 받는 사람 마음대로인가보다.

고모네도 우리 집만큼이나 살기 어려웠다. 아버지나 고모부나 돈과는 연緣이 없는 분들이셨다. 고등학생 때 서울역 주변 판자촌에 살던 고모네를 찾은 적이 있었다.

내 나이 또래의 사촌이 길거리 행상으로 살림을 해나가는 힘든 형편이었다. 하지만 고모는 인사하고 나오려는 내게 지금으로 치자면 5만 원쯤 되는 돈을 쥐어 주셨다.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임을 잘 아는 나는 너무 놀랐다.

한편으로 미안했지만 한편으로 는 요긴하게 쓸 생각을 했다. 두세 번인가 고모님을 찾았는데 늘 그만큼 돈을 쥐어 주셨다. 정이 넘치는 고모님은 후에 외손주 둘을 신학대학에 보냈다. 그중 한 사람은 신부가 됐다. 고모님으로부터 배운 게 있어서 요즘 조카들이 오면 돈을 쥐어 보낸다. 돈을 쥐어 주면서 고모님을 떠올린다.

방송사에 입사하면서 나도 남들처럼 선물을 하기 시작했다. 한 선배가 연말마다 회사 다이어리를 몇 십 권씩 사서 부치는 걸 봤다. 방송

사 로고가 찍힌 다이어리는 나름 인기가 있었다. 나도 따라 해보았다. 연말이 되면 스무 명 남짓 명단을 만들어 다이어리를 보냈다.

몇 분은 ‘내년에도 꼭 보내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해오셨다. 연말이 되면 명단을 만들고 받는 분의 얼굴을 떠올리며 보냈다.

작은 즐거움이였다. 작은 아이디어라도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방송사에 입사하면서, 선물 주고 받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됐다. 라디오 제작부서에는 매니저들이 자주 찾아왔다.

가수들이 새로운 음반을 내면 음반을 들고 PD를 만나러 온다. 라디오 PD들은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노래를 찾아내려고 노력하지만 하루에도 몇 명씩 음반을 들고 찾아오는 가수나 매니저들을 일일이 상대하고 노래를 직접 들어보기가 쉽지 않다.

해서 입소문 난 노래를 찾아 들어보거나 또는 마음에 둔 작곡가, 작사가, 가수의 노래를 모니터링해서 선곡한다. 그러다 보니 노래를 홍보해야 하는 매니저들은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짜낼 수 밖에 없다.

30여 년 전, ‘경옥고’라고 불리는 작곡가 겸 매니저가 있었다. 간혹 PD들 책상에 경옥고 한 병씩을 놓고 가서 붙여진 별명이었다.

그는 행동이 재빠르고 열심이어서 라디오 공개방송 때는 관객 안내를 도와주기도 했다. 아이디어도 독특하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심인 청년이니 뭔가 해낼 거라고들 했다. 훗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을 역임했던, 장윤정의 ‘어머나’를 작곡한 윤명선 작곡가의 무명 시절 이야기다. 경옥고가 날리자 아류의 매니저들이 등장했다.

출근 시간 전에 와서 기다렸다가 PD들이 출근하면 종이컵에 녹차 한 잔을 놓고 가는가 하면 매일 복권 한 장을 책상 위에 놓고 가는 매니저도 있었다. 돈으로 치면 천 원이다. 당시의 정서로 천 원은 뇌물도 아니었다. 모두들 대박이라며 반겼지만 복권이란 게 기적처럼 당첨되는 것 아닌가.

당연히 계속해서 팡이 나오자 받

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복권 선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선물은 정성이다. 지난해 설날, 본당 신부님은 새배돈을 준비했다.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 교우 한 분께 천 원짜리 지폐를 선물했다. 작은 행복이라도 나누려는 신부님의 정이 고마웠다. 신부님으로부터 난생 처음 새배돈 선물을 받았다. 일주일에 미사 보는 교우가 600여 명이니 60만 원쯤 쓰셨을 게다. 그 돈으로 이렇게 골고루 행복을 나눠주는 쉽지 않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선물은 ‘오헨리’(O Henry)의 단편소설에 나온다. 원래 제목은 ‘동방박사의 선물’인데 누군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번역했다. 크리스마스 전날, 텔라에게는 1달러 87센트뿐이다. 사랑하는 남편 집에게 줄 선물을 사기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텔라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아름다운 머리칼의 소유자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머리칼을 잘라 팔아서 집의 시계에 어울릴 멋진 시계줄을 산다. 집의 시계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가보家寶였다. 집에 돌아온 짐은 짧아진 텔라의 머리칼을 보고 어쩔 줄 모른다. 짐은 텔라의 머리장식을 사느라 시계를 팔아 버렸기 때문이다.

서로를 위해 준비한 선물은 쓸모없어지고 말았지만, 짐과 텔라는 세상 무엇보다 고귀하고 값진 ‘마음’을 선물로 받았다. 가난한 부부가 나누는 쓸모없는 선물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바친 ‘황금, 유향, 향유’처럼 진귀한 선물만큼이나 값지다는 이야기다.

파지고 보면 새 생명만큼 소중한 선물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아기의 탄생은 가정의 축복이자 선물인 것이다. 아기는 가족에게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준다. 누구나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누군가의 선물’이었고 ‘누구를 위한 선물’이었다. 살아가면서 누구는 가정의 짐이 되기도 하지만 누구는 사회의 선물, 인류의 선물이 되기도 한다.

선물을 한다는 것은 정情을 나누는 것이다. 선물로 정을 나누는 사우회원들 되기를 바란다.



## 史劇의 히트 메이커 임금들



오명환(편제)

‘조선왕조 27王’ 중 TV 드라마에 다섯 작품 이상 출연한 임금은 총 여덟이다. 1995년 이후 약 20년 동안太祖 이성계는 일곱 번 출연했는데 1990년 이전까지 이미 다섯 번 등장한 것을 합하면 모두 열두 번으로 최다 출연했다.

英祖는 여덟 번 출연했는데, 두 임금은 차기 임금의 연쇄 출연을 동반했다. 태조는 항상太宗을 달고 나왔고 영조는 늘 사도세자와正祖를 끌고 나왔다. 드라마의 정반합과 종결 부분에서 반짝 주연은 항상 태종과 정조였으며 둘은 선대왕의 덕을 토포하곤 했다. 수양대군(世祖)은 왕위 찬탈자로서 ‘한명회’ ‘왕과 나’ 등 다섯 작품에서,燕山君은 ‘장녹수’ ‘왕과 비’ 등 역시 다섯 작품에서 용안을 내밀었다.

최근 급부상한 15대 光海君은 아홉 번 출연했다. 14대 宣祖는 허준과 이순신에 힘입어 줄곧 한심한 표정을 띄웠고, 19대 肅宗은 장희빈 덕분에 자주 출연했다. 반정反正의 추대 효과로 ‘바늘과 실’ 처럼 따라 나온 임금도 적지 않다. 中宗은 연산군의 추방으로, 仁祖는 광해군의 축출로 각각 동반 출연했고, 26대 高宗은 명성왕후, 대원군과 한 묶음이 되어 외침外侵의 환란 속에서 불운한 모습을 보였다. 한 번도 주목받지 못한 임금은 23대 純祖와 24대 憲宗이다. 순조는 10세, 현종은 8세에 각각 등극했지만 대비들의 수렴청정에 갇혀 오금을 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받은太祖와 英祖는 3백 년 터울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많다. 이성계는 여러 아들이 죽고 죽이는 골육상쟁의 원인을 제공했고, 영조는 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여 존속살인의 잔혹함을 보여줌으로써 권력은 부자와 형제도 나눌 수 없다는 점을 예증했다. 두 임금은 찬란한 업적에 비해 후계자 승계와 자식 경영에는 완전히 실패했다. 두 임금의 생애를 보면 드라마가 착목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다. 태조 이성계의 ‘심벌’은 ‘혁명아’

‘풍운아’ ‘승리자’로서 신세계 창출이고 그의 코드는 ‘군사 쿠데타’와 ‘정권탈취’다. 영조는 후기 조선을 중흥한 현군으로 무인 태조에 비해 전형적인 문인이자 노련한 권력 조율자였다. 태조가 왕조의 최초 자리에서 통치의 터를 닦았다면, 영조는 재위 52년의 최장수 기록과 82세 최고령의 복을 누렸다. 두 애비에게 ‘방원’과 ‘사도’는 ‘이단자’와 ‘배신자’였다. 증오를 넘어 전생의 원수처럼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다. ‘부자 반목’과 ‘형제 살해’-이 대목은 드라마가 집요하게 매달리는 부분이다.

두 임금은 초기에 ‘정체성’ 문제로 속을 끓였다. 태조는 변방 무사 출신으로 왕재王才가 될 수 없다는 시선을 의식했다. 그래서 ‘억불숭유’ 정책, ‘농본주의’ ‘한양천도’ 등 파격적인 패러다임 변화로 약점을 보완코자 했고, 英祖 역시 ‘씨도 모를 무수리의 자식’이니 용상에서 내려야 한다는 태생적 약점을 의식했다. 그래서 탕평책에 전념했다. 배다른 선왕 景宗의 독살 의혹에도 휘말렸고, 경종 1년에 일어난 ‘辛壬士禍’도 걸림돌이었다. 당시 여당 격인 소론이 야당 격인 노론의 주요 인사를 대거 숙청한 사건이다. 불과 2년 후 노론의 반격 덕분에 자신이 등극함으로써 여야는 역전되지만 후유증은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이인좌의 난’ ‘나주 괴서 사건’ 등은 그의 정통성을 노골적으로 거부한 내란이었다.

‘후계자 정책’은 부자父子 사이를 ‘막장’으로 만든다. 태조와 더불어 영조도 여러 차례의 선위禪位전략을 구상했다. 선위란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 왕좌를 물려주는 것’이다. 조선조에 다섯 번 있었다. 태조가 정종에게, 정종이 태종에게 했다. 왕자의 난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 외에 단종이 세조에게, 고종이 순종에게 각각 선위했지만 이것 역시 강제와 협박으로 행해진 것으로 진정한 양위는 아니었다. 영조의 선위 소동은 노화한 정치 전술이었다. 그것은 사도세자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속내를 저울질해보는 무서운 책략이었다. 영조는 세자에게 자결을 명했지만 듣지 않자 42세에 얻은 귀한 늦둥이를 평민으로 강등시키고 뒤주 안에 가둬 9일

만에 죽게 하는 엽기적 사건을 연출한다. “네 존재 자체가 역모다. 종사의 대의를 위해 처벌하노라, 그러나 생각(思)할수록 슬프(悼)구나.....”하여 사도세자로 이름 지어준 애비의 뒤늦은 탄식은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15대 임금 광해는 최근 20년간 아홉 번 출연했다. ‘광해 드라마’의 다섯 공통점은 ‘父子반목’ ‘형제갈등’ ‘정체성 불안’ ‘생명위협’ ‘당파싸움’이다. 67년 생애 중 왕세자 16년, 재위 15년, 유배생활 18년 등 50년은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나날이었다. 서자로서 임해군 다음의 차남으로 순위에서 한참 떨어진 그의 세자 책봉은 왜란을 맞아 불투명한 정국의 보전과 민심 안정을 위한 임시방편책이었다. 그러기에 선조의 냉대와 불신은 노골적이었고 설상가상 명나라는 광해군을 조선왕으로 추인하지 않았다. 광해는 이런 현실을 묵묵히 수용했고 생존을 위해 부단히 좌고우면했다. 왜란을 맞아 의주까지 피난한 임금의 권한 일부를 부여받아 전장 선봉에서 당당히 항전했고 왜군의 포로가 돼 죽을 고비도 넘겼다. 의병을 모집하고 군량미를 조달했다. 그의 배명친금排明親金 정책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양면전략’으로 광해식 ‘현실외교’였다.

광해 재위 15년은 파란곡절이었다. 세제개혁인 대동법으로 서민에게 도움을 준 반면 부자들의 원성을 샀으며, 왕권정립 명분으로 왜란 때 타버린 창덕궁과 경희궁 등을 복원하는 공사는 재정 핍박과 민생고에 부딪혀 엄청난 반발을 샀다. 반대파는 무수히 숙청됐다. 친형 임해군도 제거했고 인목대비와 영창대군에 대한 잔인한 패륜으로 사람들은 등을 돌렸으며 그에 대한 극단적인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엇갈려 표출됐다.

그의 생애(1575~1641)는 건국 3백 년 만에 연달아 닥친 두 차례의 왜란과 호란의 한복판에 있었다. 어릴 때는 임진, 정유재란을 온몸으로 겪었고 유배 때는 병자, 정묘호란을 당했다. 한마디로 ‘왜놈과 되놈’에게 짓밟힌 지독히도 불운한 청춘이었다.

광해의 말년은 처절한 비극과 결합된다. 이 귀, 김 류, 최명길,

김자점 등 서인 일파가 조카 능양군을 내세워 그를 쫓아낸 인조반정은 백 년 전 연산군을 추방한 중종반정과 흡사했다. 형 임해군과 동생 영창군, 능창군을 죽인 곳인 강화도에 자신도 유배됐다. 우리 안치圖籙安置 속의 그의 행적은 강원도 귀양지에서 사약을 받고 운명한 단종이나 화병으로 명을 차근한 연산과 사뭇 다르다. 병약한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고, 외조부는 임란 때 전사했다. 48세에 당한 폐위와 함께 처남 윤희분과 윤희발은 참수를 당한다. 유배지 탈출에 실패한 아들과 며느리는 자결하고 부인 유씨는 울화병으로 숨을 거둔다. 반년도 못되어 벌어진 총체적 가족 비극을 그러나 광해는 알지 못한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혹여 꺼진 불씨를 우려한 조정에서 그를 다시 제주도로 내쳤기 때문이다. 18년 동안 낮선 섬에 갇혀 울분과 통렬함을 삭이던 그는 이곳에서 생을 마쳤다.

홍군凶君이나, 독군毒君이나 아니면 어리석은 혼군昏君이나, 그러나 그는 종전의 괴팍한 이미지와 부정적인 선입견은 탈색하고 오히려 난국을 헤치는 현군賢君으로서 걸출한 면모를 드러낸다. “너희가 나 광해를 알아?” 드라마는 한술 더 떠서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인간적인 품미를 겸한 최고 통치자로서 그를 조명한다. 17세기의 통치자의 재평가가 이 시대에 새삼스럽게 부각되는 이유는 작금의 현실과의 유사성에서 찾을 수 있다. 방대한 예산과 국력을 동원한 공궐 재건사업은 4대강 사업을 연상시키고, 그의 ‘실리외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익과 안보를 가늠해야 하는 현재 우리 모습을 투영한다. 대동법은 연금개혁이나 의료보험 개선과 비슷한 딜레마다.

드라마는 왜 광해를 연달아 불러냈을까. 역사 인물에 대한 차별화된 시각과 평가의 반전 욕구인가 아니면 현실과 유사성에 다른 소재의 흡인력 때문인가. 세월 따라 시절이 하 수상하니 사극을 만드는 작가와 PD들은 5백 년 역사와 왕들을 틈만 나면 불러내 복잡다난했던 옛날을 다시 쫓아내 본다. 정계와 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상황은 언제나 비슷하고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 길냥이 길들이기



안 주 희(ANN)

우리 집에는 '길냥이'(밖에 돌아다니는 고양이) 한 마리가 드나들고 있다. 길냥이가 가정집을 드나드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어쩌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전에 키우던 고양이 세 마리가 모두 늙어서 죽고 난 후, 더는 고양이를 키우지 않았다.

키우던 고양이가 죽었을 때의 그 상실감을 다시 겪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다. 손끝에 만져지던 고양이털의 부드러운 느낌, 나를 쳐다보던 고양이의 사랑스러운 눈동자, 자려고 누우면 내 곁에 살그머니 다가와 자기 몸을 가만히 밀착시키던 그 따뜻하던 감각 등이 생각나서 길을 가다가 길냥이가 눈에 띄면 나도 모르게 다가가게 된다. 물론 길냥이는 사람이 다가가



면 경계심을 품고 달아나버린다.

어느 날 지하 주차장에서 예쁜 새끼 냥이 한 마리를 봤다. 그래서 가방 속에 사료를 넣어서 다니다가 냥이가 나타나면 우리 집 올라가는 층계 옆 구석진 곳에 사료를 놓아두기 시작했다. 냥이는 경계심이 많아서 내가 쳐다보면 절대로 근처에 오지 않았다. 나는 사료만 놓아두곤 얼른 자리를 비켰다. 얼마나 지났을까. 언제부턴가 차를 타러 지하 주차장에 내려갈 때나, 혹은 외출에서 돌아와 주차를 하려고 할 때 어디선가 냥이가 나타나 내 주변을 어슬렁거린다는 걸 알았다. 냥이는 특유의 '야옹' 소리를 냈다. 나는 냥이에게 '예뽀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 그리고 냥이가 보일 때마다 "예뽀아~~"라고 불렀다. 사료를 들고 "예뽀아~~"라고 부르며 어디선가 나타나는데 결코 곁에 다가오는 법은 없고 먼발치서 나를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다. 사료를 놓아두고 층계를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서야 먹으러 다가갔다.

어느 날 집 앞 층계에서 예뽀이를 발견했다. 먼발치서 나를 보고 있기에 시험 삼아 먹이그릇을 현관에 놓아두고 현관문을 살짝 열어놨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예뽀이를 향해 이름을 한번 불러주고 손짓을 한 후 나는 고양이의 행동을 숨어서 지켜봤다.

열려있는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잔뜩 경계를 하면서도 사료를 다 먹더니 쏜살같이 달아났

다. 성공. 냥이가 집안에 발을 디디도록 한 것이다. 길냥이에게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그 후부터는 밖에서 냥이를 발견했을 때 손짓하여 부르며 잔뜩 경계하면서도 졸졸 따라왔다. 냥이에게 약간의 신뢰를 얻은 것이다.

이번에는 사료를 현관 옆방에 놓고 유인했다. 결국 냥이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방까지 입성을 하게 됐다. 여전히 경계심이 많아 사료를 먹은 후엔 부리나케 밖으로 사라지던 냥이가 어느 날부터 먹이를 다 먹은 후에도 나가지 않고 거실 한 귀퉁이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런데 냥이가 집 안에 있는 동안은 현관문을 계속 열어놔야 했다. 웅크리고 있다가도 사람이 다가가면 쏜살같이 밖으로 달아나버리니까 냥이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려면 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궁리 끝에 냥이의 통로를 현관으로부터 베란다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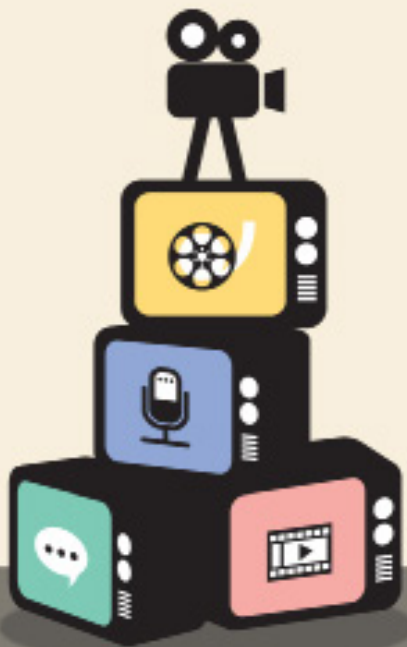
우리 집은 빌라의 1층이어서 베란다 쪽으로 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계단이 있다. 냥이에게 베란다 쪽 통로를 알게 해줬다. 냥이는 베란다로 통하는 길을 금방 터득했다. 이제는 조금 열어놓은 베란다 틈으로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지 집으로 들어와 베란단에 있는 사료



와 물을 먹는다. 모래화장실(모래를 담아놓은 고양이 화장실)도 베란단에 비치했는데 좀처럼 그 화장실을 이용하지는 않았다. 이제 '예뽀이'는 쓰다듬는 나의 손길을 어느 정도는 허락하고, 나의 쓰다듬음에 '가르릉' 거리며 반응을 보인다. 옛날에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던 집고양이들과의 관계도 좋았지만, 현재의 이 종속적이지 않은 관계에도 지극히 만족한다.

'예뽀이'는 나의 호의를 받아들이지만 자유로운 냥이다. 언제든지 자기가 원할 때는 밖을 돌아다니고 집에서 쉬고 싶을 땐 들어와 쉰다. 내가 사료를 줄 형편이 되지 않는 다 하더라도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데 하등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내가 "예뽀아~~"라고 부르면 반응해주고 나의 손길에 '가르릉' 해주는 이 평등한 관계가 참 좋다. 내가 늙어 '예뽀이'를 보살필 수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냥이의 생존에 대해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다.

www.fbc.or.kr



## MBC와 늘 함께하는 방송문화진흥회는 품격있는 방송문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관리감독기구이자 대주주로서 MBC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최고의 공영방송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방송문화진흥회는

우리나라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콘텐츠진흥, 학술지원,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